

정율성의 예술세계 스크린에서 만난다



영화 '엔안' 본격 제작 돌입 3개국 합작·광주 등서 촬영 지역 배우 캐스팅 오디션도

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음악가로 알려진 작곡가 정율성(1918~1976·작은 사진)의 불꽃 같은 삶과 사랑을 담은 영화 'YENAN 엔안'(가제)이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엔안'은 중국 인민 음악가 정율성의 꿈과 이상, 예술세계 등 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는 정율성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역사적 교훈과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던지는 작품이다. 또 정율성의 고향 광주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정서를 반영하고 '고향과 역사'라는 주제를 통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독립유공자들을 재조명한다.

영화는 중국현지영화법인과 호주 영화사(9tailsfilms Australia) 그리고 한국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JL연기학원에서 영화 '엔안'의 조연·단역 캐스팅 오디션이 열렸다. 오디션에는 김시우(왼쪽 세번째) 감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영화사의 합작으로 제작되며 20억원이 투입됐다.

각본·감독은 극작가이자 연극연출가, 영화감독을 겸하고 있는 김시우 감독이 맡았다. 그는 현재 호주를 거점으로 상업 뮤지컬 'Ninetails', '칭키스킨' 등을 제작중이다. 영화는 오는 5월 촬영에 들어갈 예정으

로 주요 촬영지는 광주, 화순 등 광주·전남지역과 중국 북경, 연안 등이다.

김시우 감독은 "정율성이 광주 출신인 만큼 광주·전남지역의 배우들을 영화에 투입할 예정이다"며 "지난 9일 광주에서 조연과 단역배우 캐스팅 오디션을 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또 "이번 영화는 사드 정국으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한중간 우호적인 관계를 논할 수 있는 소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10년 전 좀 정율성과 관련된 영화를 제작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좋은 작품으로 완성해 관객들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항일투사 이야기가 아닌 폴로케스트라의 연주를 영화 배경음악으로 삼아 음악영화의 모습도 함께 담아낼 계획입니다."

영화는 오는 9월 중국에서 먼저 개봉할 예정이며 2019년 초 한국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율성 선생은 숭실학교와 전주 신중학교를 다녔으며 이후 중국 남경(南京)에서 의열단의 조선 혁명간부학교 제2기로 졸업했다. 민족독립과 아시아 평화를 노래한 그의 대표곡으로는 연안에 있을 때 작곡한 '연안송가(延安頌歌)', '팔로군행진곡(八路軍行進曲)', '3·1 행진곡', '조선해방행진곡', '조선인민군행진곡', '두만강' 등이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김태오·오화룡·박흡... '광주 시인' 8명 생애 조명

이동순 교수 '...시인들' 출간

광주를 시문학의 고장이라고 한다. 그것은 지역 출신 시인들의 문학적 역량이 현대 시문학사를 견인해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무엇보다 광주에는 내로라하는 시인이 많다. 현대문학의 대표적 시인인 '나두야간다'의 박용철은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이 고향이다. 김현승은 비록 출생지는 평양이지만 숭실소학교를 다녔고, 양림동의 언덕과 무등산을 바라보며 시심을 키웠다. '전라도'의 시인 이상부나 '휴전선'의 시인 박봉우도 광주가 낳은 시인이다.

시문학의 고장인 광주 출신 시인 8명을 조명하는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가 펴낸 '광주 시인들'(소명출판·사진)은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시인에서부터 문학사 어디에도 규명되지 않은 시인까지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저자는 근현대 광주전남의 최초 현대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시인 김



태오를 호명한 다. 광주 민족운동 핵심에 있었던 아동문학가이자 시인, 학자로 활동했던 그의 문학적 생애를 정리했다. 김태오는 1933년 동요집 '설강동요집'을 출간했는데, 이는 윤석중이 낸 2권에 이어 한국아동문학사에서 3번째로 나온 동요집이다.

그의 작품에는 지금까지 불리는 '동무들아 오너라 불맞이하자/ 너도나도 바꾸니 옆에끼고서/ 달래방이 씌마귀 나물개 오자/ 종다리도 높이며 노래부르네'(봄맞이 가사)가 있다.

저자는 또한 '시인부락' 동인이었던 오화룡을 처음으로 문학사에 불러낸다. 오화룡은 해방 이전에는 동인지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북청여자사범학교 교사로 재직했

다. 해방 이후 월남해 광주에 정착해 국어교사로 근무했다. '현대문학'과 '전남일보' 등에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는데, 저자는 이번 책을 쓰면서 105편의 시를 발굴했다.

광주에서 태어나 교사이자 시인으로 활동했던 박흡 시인도 조명했다. 1950년대 광주전남문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 시집 한 권 남기지 않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박흡 시인은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박흡은 '경향신문'에 '젊은 강사'를 발표하며 문단에 등장했다.

광주교보와 서중에서 야구선수와 감독으로 활동했던 김약의 삶과 작품 세계도 들여다봤다. 김약은 1950년대 '영토'와 '키르쿠의 석유'를 발간했으며 비극적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다.

한편 저자는 현대 문학사에 궤적을 남긴 김현승, 조태일, 이상부의 삶과 문학도 다룬다. 또한 김현승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등단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손광은 시인의 작품 세계도 조명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광주여성재단 무료 진행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2018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일반시민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진행되는 교육으로 지역사회의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특성 및 대처방법, 지원체계, 사례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1회 교육인원은 20~100명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폭력예방교육의 무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신청은 전화(1661-6005, 062-670-0537)와 광주여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 (shp.mogef.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클래식계 두 신사의 무대 호흡

한상일·이우일 '젠틀듀오 리사이틀' 내일 금호아트홀



한상일

이우일

피아니스트 한상일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우일이 '젠틀듀오 리사이틀'을 연다.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한상일은 서울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를 졸업하고 독일 뉘른베르트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부산음악콩쿠르, 해외파견 음협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KBS서울신인음악콩쿠르 등에서 1위 및 대상 수상했으며 KBS교향악단, 코리안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인천시향, 수원시향, 부산시향, 창원시향, 프랑스 로렌 국립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기도 했다.

이우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

학교 재학 중 도독해 뮌헨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마산음협 콩쿠르 1위, 금호연다.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한상일은 서울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를 졸업하고 독일 뉘른베르트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부산음악콩쿠르, 해외파견 음협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KBS서울신인음악콩쿠르 등에서 1위 및 대상 수상했으며 KBS교향악단, 코리안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인천시향, 수원시향, 부산시향, 창원시향, 프랑스 로렌 국립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기도 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도시광주시민행동' 내일 발기인대회

'문화도시광주시민행동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허달용)는 오는 13일 오후 4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7층에서 '문화도시광주시민행동 발기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도시광주시민행동'은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과 문화예술기관 운영에 대한 비판은 물론 '문화도시 광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2015년 결성된 조직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계 및 시민단체 인사 1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취지문'과 '발기문 낭독'을 통해 광주에서 문화가 제기

능을 하도록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고, 철저한 적폐청산과 광주문화개혁으로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결의를 밝힐 계획이다.

1부 발기인 대회가 끝난 후에는 박구용(시민자유대학 이사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존재방식(박호재)'과 '광주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조전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천만홀릭 커밍순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경리 이원석 신동엽 김기방 은지원

CHANNEL A